

손병석 차관 “100년 먹거리 초석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” 강조

18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…입주 기업 애로사항 청취산단 활성화 당부

-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18일(목),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(익산시 왕궁면 홍암리)을 방문, 기업 입주현황과 산단 진입도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.
-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, “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도의 지역 전략산업인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한 지역특화 산단의 모범사례”라고 평가하면서,
 - “100년 먹거리 초석이 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(국가산단)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”이라고 강조했다.
 - 또한, “현재 조성중인 산단 진입도로를 ‘19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여 근무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, 지자체, LH,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들로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도로 산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- 한편,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유일의 ‘식품산업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’로, 세계 수준의 동북아 식품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요청에 따라 지난 ‘12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했다.
 - 이후, 사업시행자(LH)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(농식품부)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풀무원(주), 하림(주), 순수본(주) 등 식품산업 관련기업 60여 개 기업을 유치하였다. 이 중에서 하림(주)을 비롯한 17개 기업이 입주하여 정상 가동 중이다.

2018. 10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